

2024.01.17.(수) 증권사리포트

만든 날짜: 2024-01-17 오전 4:17

수정한 날짜: 2024-01-17 오전 4:23

2024.01.17.(수) 증권사리포트

한글과컴퓨터

SDK로 AI시장을 요리

[\[출처\] 키움증권 김학준 애널리스트](#)

준비된 SDK 사업, 올해 AI 및 클라우드 비중 확대 전망

한글과컴퓨터의 4Q 연결 실적은 매출액 885억원(YoY +17.0%), 영업이익 161억원(YoY +486.8%)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컴 브랜드마케팅에 따른 광고비용이 집행되었기 때문에 기존 대비 추정치를 하향 조정하였다. 올해 공공부문의 AI 및 클라우드 관련 예산집행은 1.2조원정도로 추산되며 이중 동사가 직접적으로 참여 가능한 부문은 680억원 수준으로 판단된다. 기존 온프레미스 버전 외 클라우드의 매출에 대한 추가적인 성장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 간접적인 방식으로 공공부문을 타겟하는 업체들에게 SDK를 공급하여 성장성을 확장시킬 계획이다. 이에 따라 AI 및 클라우드 매출은 기존 100억원 수준에서 비중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준비된 SDK 사업, GPT스토어의 핵심은 문서

이번에 오픈한 GPT스토어는 일반인도 어플리케이션을 생성할 수 있다는 것이 최대 장점으로 부각받고 있다. GPT스토어의 핵심은 SDK로 각 SDK들을 조합하여 어플리케이션으로 생성하는 것이다. 이 중 문서와 이미지 관련한 것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동사의 핵심 기술인 문서 관련 AI들이 부각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미 2022년부터 기술들의 SDK 전환이 준비되고 있었으며 GPT스토어는 글로벌 확장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이번 클립소프트와 42마루의 투자에서 확인되듯이 SDK화 할 수 있는 기술력 확보를 M&A를 통해 진행하고 있어 여유자금을 활용한 추가 성장도 가능할 것이다.

투자의견 BUY, 목표주가 34,000원 상향

한글과컴퓨터에 대한 의견 BUY를 유지하며 목표주가를 기존 25,000원에서 34,000원으로 상향한다. 목표주가는 2024년 예상 EPS에 Target PER 21.5배를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적용 PER은 기존에 적용하던 국내 소프트웨어 업종 평균인 16.5배에 30% 상승한 수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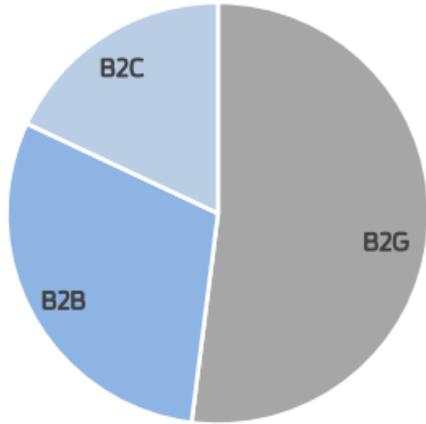
올해 관심을 가져야할 부분은 1) 공공부문의 AI 및 클라우드화에 따른 실적 성장, 2) SDK 모듈화에 따른 매출 비중 확대, 3) SaaS 및 SDK를 통한 해외 진출, 4) 확보된 자금을 통한 추가 M&A 이다. 현재 GPT스토어를 통해 해외 확장의 발판이 마련된 것으로 판단되며 AI관련 업체들이 실제 실적에 비해 매우 고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 동사의 Valiation 할증 근거는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투자지표

(십억원, IFRS 연결)	2021	2022	2023E	2024E
매출액	241.7	242.0	265.7	297.5
영업이익	39.6	25.0	40.1	49.3
EBITDA	67.2	53.1	61.8	67.6
세전이익	23.6	-14.8	38.5	50.0
순이익	4.4	16.7	29.6	38.5
지배주주지분순이익	18.0	46.8	29.6	38.5
EPS(원)	723	1,855	1,225	1,591
증감률(% YoY)	-52.3	156.8	-34.0	29.9
PER(배)	36.7	6.6	11.6	15.9
PBR(배)	2.41	0.98	1.01	1.63
EV/EBITDA(배)	12.1	6.2	3.6	5.1
영업이익률(%)	16.4	10.3	15.1	16.6
ROE(%)	6.6	15.8	9.0	10.7
순차입금비율(%)	-23.8	-29.9	-57.0	-80.1

자료: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3Q 한컴오피스 부문별 판매 비중(추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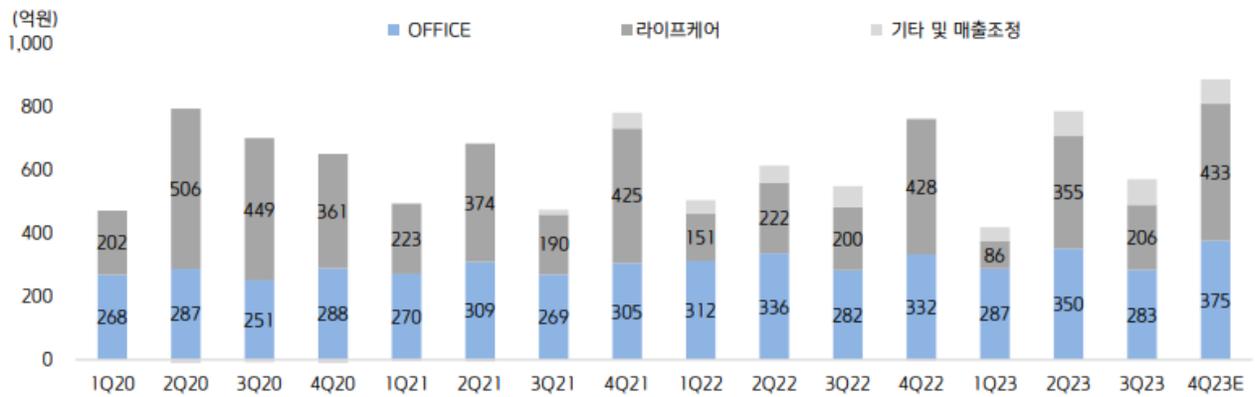
자료: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추정

GPT스토어에서 문서 활용도가 높은 분야



자료: GPTStore.ai,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부문별 매출액 변동 추이



자료: 한글과컴퓨터,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옵트론텍
한글탈태

[\[출처\] 키움증권 오현진 애널리스트](#)

광학 부품 전문 업체로의 높은 경쟁력 보유

동사는 광학계 핵심 기술을 바탕으로 광학 필터 및 광학 렌즈를 전문으로 납품하는 업체이다. 동사 광학 필터 부문은 카메라 모듈 슬림화에 최적화된 필름 필터를 최초로 양산에 성공하는 등 시장 내 높은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3D 센싱 등 인식 분야로의 적용 분야 확대도 가능하다. 광학 렌즈 부문의 경우 CCTV 및 블랙박스 외에 자동차용 카메라 등을 주요 제품으로 한다. 프리즘 등 폴디드 줌 관련부품 또한 국내 주요 고객사를 통해 국내외 스마트폰 제조사에 공급 중이다.

동사는 22년 대규모 적자 이후 대대적인 사업 구조 개선을 진행했다. 적자 품목정리 및 생산 시설 이전(베트남) 등을 진행함에 따라 향후 광학 줌 등 수익 품목 중심의 외형 성장은 동사의 수익성 개선 속도를 높일 전망이다.

폴디드 줌 적용 확대 수혜 & 전장 사업 확대 주목

24년 동사의 성장은 폴디드 줌 관련 부품 수요 증가가 이끌 전망이다. 정체된 스마트폰 출하량 영향이 불가피한 이미지센서 필터 부문과 달리, 동사의 광학 줌 관련 매출은 23년 984억원(YoY 198%)에 이어 24년 1,104억원(YoY 12%)을 전망한다. 최근 국내외 주요 스마트폰 제조사들의 폴디드 줌 적용 확대 움직임은 지속되고 있다. 특히 동사는 올해 국내 고객사를 통한 중화권 스마트폰 제조사향 공급증가를 주목한다.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통한 중장기 성장성도 유효하다. 동사는 지난 11월 국내 자동차 제조사향으로 헤드램프용 MLA(Micro Lens Array) Glass 웨이퍼 양산을 진행했다. 기존 차량용 광학 부품 외에 전장용 제품 라인업을 추가함에 따라 향후 전장 부품 관련 비중 확대를 예상한다.

저평가 요인 해소, 기업 가치 제고 본격화 전망

동사의 24년 실적은 매출액 2,439억원(YoY 6%), 영업이익 183억원(YoY 24%)을 전망한다. 동사 주가는 전방 시장 둔화 및 대규모 적자 등의 영향으로 부진했다. 다만, 최근 제조 부문 턴어라운드에 이어 금융자산 처분 등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도 진행함에 따라 저평가 요인은 해소된 것으로 판단한다. 현재 주가는 24년기준 PER 5.7배로, 올해 수익성 개선 본격화 및 전장 산업 진출을 통한 중장기 성장성 반영할 시 현저한 저평가 국면으로 판단된다

투자지표

(십억원, IFRS)	2021	2022	2023F	2024F
매출액	200.9	199.5	229.2	243.9
영업이익	-5.0	-48.9	14.8	18.3
EBITDA	12.9	-32.6	27.9	30.2
세전이익	-2.7	-64.6	15.6	20.7
순이익	-2.6	-78.3	15.6	17.8
지배주주지분순이익	-2.6	-77.9	15.5	17.7
EPS(원)	-105	-3,048	607	694
증감률(%YoY)	적지	적지	흑전	14.4
PER(배)	NA	NA	6.5	5.7
PBR(배)	2.04	3.14	2.24	1.61
EV/EBITDA(배)	29.2	-8.0	7.6	5.2
영업이익률(%)	-2.5	-24.5	6.5	7.5
ROE(%)	-2.5	-113.1	41.3	32.8
순차입금비율(%)	153.1	560.2	262.6	9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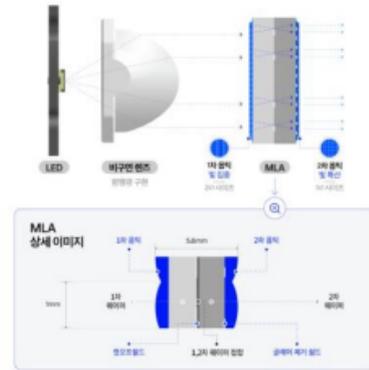
자료: 키움증권

MLA의 미세한 구조를 위해 반도체 공정 적용



자료: 현대차, 키움증권

MLA 광학계 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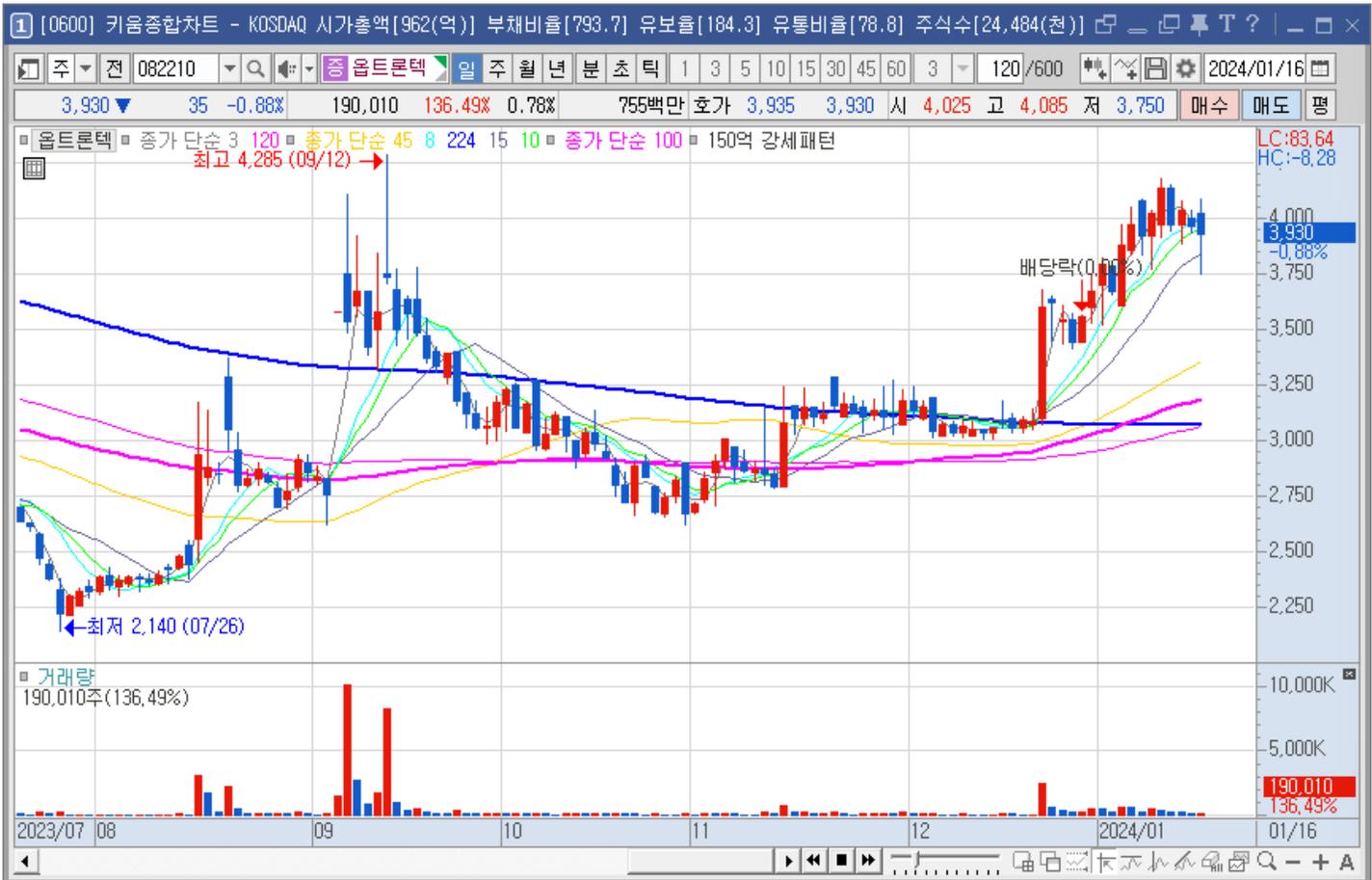


자료: 현대차, 키움증권

옵트론텍 차량용 렌즈 적용 제품



자료: 옵트론텍, 키움증권



NH투자증권

4Q23 Preview : 커버리지 중 가장 양호한 실적

[\[출처\] IBK투자증권 우도형 애널리스트](#)

4분기 실적 컨센서스 하회 전망

4분기 NH투자증권의 지배주주순이익은 862억원 (+ 24.4% YoY, -14.5% QoQ)으로 컨센서스를 20.6% 하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는 기존 당사 추정치 754억원 대비 14.2% 높은 수준이며 4분기 금리 하락으로 인해 개선된 처분 및 평가손익에 기인한다. NH투자증권의 태영건설 관련 익스포저는 230억원 수준으로 추정되며 일부는 셀다운이 이루어 질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타사 대비 익스포저가 상대적으로 적어 실적에 대한 태영건설 관련 우려는 적을 것으로 생각된다.

양호한 실적 시현 전망

NH투자증권의 4분기 실적은 커버리지 증권사 중 가장 양호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타사 대비 적은 총당금 적립액과 높은 트레이딩 손익 개선세에 기인한다. 트레이딩 및 기타 손익은 전분기 대비 151.6%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며 전년동기 대비는 3.9%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4분기 영업환경 악화에 따라 Brokerage 관련 손익은 전분기 대비 25.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은 올해 1월 29일부터 기존 0.5%에서 1.0%로 변경 (1,000 만원 미만 0.6%, 이상 1.0%)되며 2024년 세전이익에 대한 영향은 2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IB 및 기타 손익은 전분기 대비 14.7% 감소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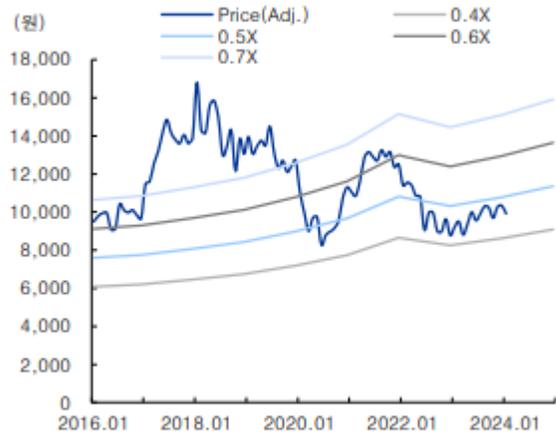
투자의견 매수 및 목표주가 12,700원 유지

NH투자증권에 대해 투자의견 매수 및 목표주가 12,700원을 유지한다. 투자의견을 매수로 유지하는 이유는 1) 타사 대비 국내외 부동산 익스포저가 적어 2024년 실적에 대한 부담이 적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며, 2) 6.8%의 높은 배당수익률로 인해 배당기준일이 결정되는 3월까지 주가 하방은 견고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단위:십억원, 배, %)	2021	2022	2023E	2024E	2025E
순영업수익	2,363	1,366	1,675	1,737	1,728
영업이익	1,317	521	719	778	796
지배주주순이익	948	303	554	586	614
EPS	3,007	867	1,583	1,674	1,756
증감률	56.2	-71.2	82.5	5.7	4.9
P/E	4.2	10.1	6.5	5.9	5.6
BVPS	21,682	20,647	21,783	22,520	22,591
P/B	0.58	0.42	0.47	0.44	0.44
ROA	1.6	0.5	1.0	1.1	1.1
ROE	15.0	4.3	7.5	7.6	7.8
배당수익률	8.4	8.0	6.8	7.1	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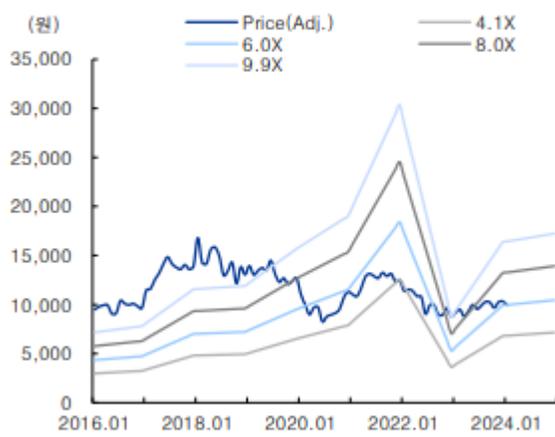
자료: Company data, IBK투자증권 예상

그림 1. PBR 밴드 추이



자료: Quantwise, IBK투자증권

그림 2. PER 밴드 추이



자료: Quantwise, IBK투자증권





BGF리테일

4분기 실적 뒤틀림 증현

[\[출처\] IBK투자증권 남성현 애널리스트](#)

4분기 실적 성장 제한적

당사에서는 4분기 실적 성장을 예상했지만, 최근 상황을 고려할 경우 이익 증가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 BGF리테일 4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2조 713억 원(전년동기대비 +6.3%), 542억 원(전년동기대비 +3.5%)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 실적 추정치를 다소 낮춘 이유는 1) 지난해 높은 기저에 따른 영향을 극복하기 쉽지 않았고, 2) 소비경기 및 비우호적인 날씨 여파에 따른 집객력 감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당초 ▶ 12월 기저가 상대적으로 낮고, ▶ 지난해 1회성 비용(물류 및 기타), ▶ 본부 임차 비중 확대에 따른 가맹수수료율 증가가 이를 커버할 것으로 보였지만, 쉽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한다.

2024년은 기저와 전략적 성과 기대되는 구간

4분기 영업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2024년 동사에 대한 긍정적 시각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러한 이유는 1) 여전히 기존점 성장과 신규점 출점 효과가 지속되고 있고, 2) 기저에 따른 효과, 3) 본부 임차 비중 확대에 따른 이익 기여도 증가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편의점도 경기둔화에 따른 영향을 온전히 피해가기 어렵다. 하지만, 대내외적인 변수가 상존했던 2023년에도 기존점

과 신규점 성장이 동시에 이루어졌다. 2022년 기저까지 감안할 경우 의미 있는 성장으로 평가할 수 있다. 기존점 성장률과 신규점 확대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잠재수요가 공급을 앞서가고 있다는 반증이다. 특히, 편의점 산업이 빅2 체제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동사의 성장 여력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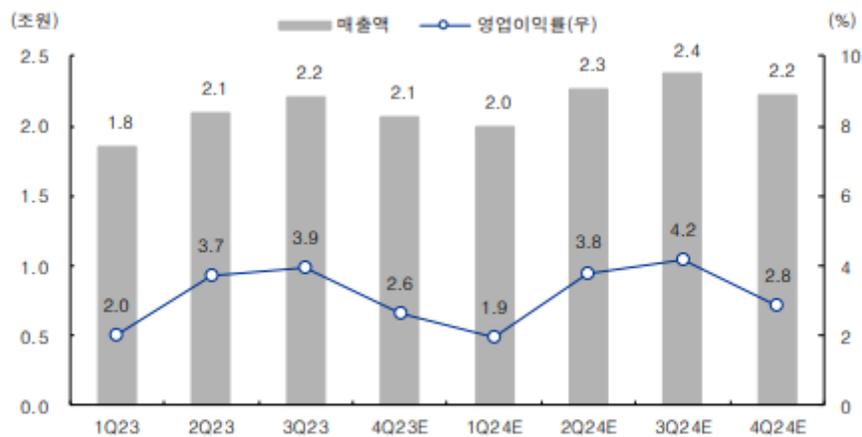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22만원 유지

동사에 대한 투자의견 매수 및 목표주가 22만원을 유지한다. 2024년 본부 임차 비중 확대에 따른 효과가 더욱 돋보일 것으로 전망되어 긍정적 시각을 유지한다.

(단위:십억원,배)	2021	2022	2023F	2024F	2025F
매출액	6,781	7,616	8,226	8,854	9,403
영업이익	199	252	256	287	315
세전이익	193	254	256	340	388
지배주주순이익	148	194	200	262	299
EPS(원)	8,542	11,198	11,560	15,168	17,292
증가율(%)	20.3	31.1	3.2	31.2	14.0
영업이익률(%)	2.9	3.3	3.1	3.2	3.3
순이익률(%)	2.2	2.5	2.4	3.0	3.2
ROE(%)	19.6	21.8	19.5	22.1	21.5
PER	17.0	18.8	11.4	9.3	8.1
PBR	3.1	3.8	2.1	1.9	1.6
EV/EBITDA	5.0	5.8	2.3	2.0	1.3

자료: Company data, IBK투자증권 예상

그림 1. BGF리테일 영업실적 추이



자료: BGF리테일, IBK투자증권



백산

Nike 내 점유율 확대로, 25년 800억원 영업이익 예상

[\[출처\] 하나증권 김두현 애널리스트](#)

투자의견 BUY, 목표주가 20,000원 제시

백산에 대해 투자의견 BUY, 목표주가 20,000원을 제시한다. 동사는 현재 1) 주력 고객사인 Nike의 공급망 재편으로 인해 내부 점유율이 확대되고 있으며, 2) 차량용 내장재 부문의 본격적인 확장성이 기대된다. 3) 추가적으로 인도네시아 CAPA 증설을 통해 주력 고객사의 수요 증가를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동사의 구조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시점이다. 동사의 현재 주가 수준은 2024년 추정치 기준 PER 약 5배 수준으로 Peer 대비 저평가를 받고 있어 투자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판단한다.

Nike 내부 점유율 확대와 차량용 내장재 잠재력을 기반으로 구조적인 성장 기대

2024년은 Nike 내부 점유율 확대와 더불어 차량용 내장재 매출처 확장이 기대되는 시점으로 동사의 구조적인 성장 초입이라고 판단한다. 백산의 주력 고객사인 Nike는 작년부터 공급망 재편을 통해 국산 물량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전방 고객사의 구조적인 수요 변화에 따라 동사는 올해 Nike의 합성피혁 부문 내부 점유율 1위가 예상된다. 주요 고객사인 Nike는 본격적인 금리인하 효과가 거시경제에 반영될 2024년 하반기부터 다시 공격적인 전망치를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내부 점유율 확대에 따른 동사의 수혜 강도는 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적으로 인도네시아 공장 증설이 2024년 하반기에 완료될 예정으로 지속적인 내부 점유율 확대가 기대된다. 그리고 동사의 차량용 내장재 부문은 본격적인 글로벌 진출이 기대된다. 현재 현대차 그룹의 약 30개 모델에 합성피혁을 공급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들과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그 결과로 2023년 4월부터 글로벌 자동차 그룹 S사의 모델 일부에 동사의 합성피혁을 소량 탑재하기 시작했으며, 본격적으로 탑재 모델이 확대될 시 차량용 내장재 부문의 매출에서만 연간 약 2,000억원 이상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주력 매출처 내부 점유율 확대와 신규 매출처 확보를 통한 구조적인 성장 국면에 돌입하였다고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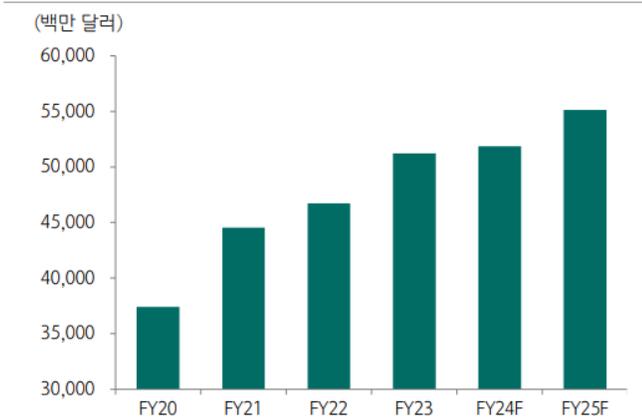
2024년 예상 매출액 5,007억원, 영업이익 603억원 전망

백산의 4Q23 분기 실적은 매출액 1,020억원(+3.1%, YoY), 영업이익 107억원(+2.6%, YoY)으로 전망함에 따라 2023년 매출액 4,197억원(-11.8%, YoY), 영업이익 518억원(+2.9%, YoY)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사는 리오프닝으로 인한 2022년 베이스가 높은 상황에도 이익 성장이라는 호실적을 달성했다. 이는 원부자재 가격 안정화와 동사의 원가절감 노력에 따른 성과로 파악된다. 2024년의 경우 연간 매출액 5,007억원(+19.3%, YoY), 영업이익 613억원(+18.5%, YoY)으로 전망한다. 동사는 1) 주력 고객사인 Nike 내부 점유율 확대에 따른 스포츠용 신발향 매출 증가와 함께 2) 본격적인 차량용 내장재 글로벌 진출이라는 신규 성장 동력까지 확보했다. 2024년은 백산의 구조적인 성장의 원년이다. 중장기적인 성장성이 기대되는 만큼 동사를 주목해야 할 시점이다.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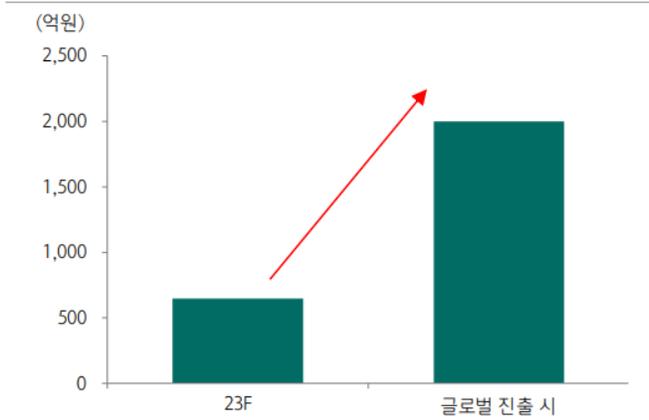
투자지표	2021	2022	2023F	2024F
매출액	371.1	475.9	419.7	500.7
영업이익	23.2	50.3	51.8	61.3
세전이익	29.2	54.8	55.0	58.0
순이익	19.2	45.3	42.9	44.7
EPS	792	1,871	1,867	1,989
증감율	흑전	136.24	(0.21)	6.53
PER	10.39	4.37	5.70	5.25
PBR	1.37	1.07	1.14	0.94
EV/EBITDA	8.25	3.88	4.16	3.07
ROE	14.37	27.95	22.04	19.45
BPS	6,016	7,626	9,357	11,096
DPS	100	150	250	250

도표 5. Nike 연간 매출 추이 및 추정치



자료: Nike, Bloomberg, 하나증권

도표 6. 차량용 내장재 글로벌 제조사 채택 시 매출 전망치



자료: 백산, 하나증권



NHN

시간과 비례하지 않는 결과

[\[출처\] NH투자증권 김진구 애널리스트](#)

동사 목표주가 2.7만원으로 하향

동사 목표주가를 3.1만원에서 2.7만원으로 하향하고 투자 의견 Outperform을 유지한다. 목표주가 산정은 24E 지배주주순이익 474억원에 목표 PER 20배를 적용한 결과이다. 동 밸류에이션은 동사의 낮은 마진율 및 이익 성장성에 대한 확신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중립적 수준으로 정의할 수 있다.

냉정한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존재

동사의 대부분 마진은 게임과 결제를 중심으로 창출되고 있으며, 동사가 오랜기간 동안 투자를 진행해 오면서 성장성에 대한 어필을 해온 콘텐츠, 커머스 및 기술 부문에서는 여전히 BEP 내지 적자 기조에 머물고 있다. 당사는 직전리포트에서 인터넷 비즈니스는 선두 기업 중심의 부가가치를 흡수하는 성향이 짙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강조했으며 동사가 세컨드 티어로서 선두 업체를 위협하기 위해서는 보다 전략적인 소수 세그먼트에 화력을 집중할 필요성이 매우 큼을 재차 강조하고자 한다. 결국 시간과 비례하지 않는 주요 세그먼트의 손익부담은 동사의 마진율을 제한시키고 주주 가치를 증대시키는데 장애물로 작동할 수 있다. 특히 커머스 사업부문은 중국을 주축으로 가져간 전략이었으나 최근 중국 현지 경기침체 이슈와 한국산 제품에 대한 중국 관심 결여 등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당사는 아오코닉 기반의 명품 라인업 등 제품 다변화를 통해 중국을 공략하고자 하나 이에 대한 성과 확인 전까지는 보수적인 관점을 지속 유지한다. 또한 기술 사업은 정부 예산 기반 공공 클라우드 성장을 지속 강조 중이나 중기적 마진율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없다는 점과 향후 시장이 AI 기반의 멀티 솔루션을 탑재한 클라우드 성장성에 집중할 것이라는 관점에서 동사의 AI 전략이 제한적인 사안은 공공과 민간을 포괄한 클라우드 비즈니스의 성장 잠재력을 낮추는 리스크로 작동할 수 있다.

4Q23E 영업이익 128억원으로 추정

동사의 4Q23E 영업이익은 128억원으로 전분기대비 45% 감소하면서 부진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며 관련 영업이익률을 2.1%로 제시한다. 다수 사업 세그먼트에서 계절적 성수기 효과로 전분기대비 매출 증분을 만들어 내겠지만 중국 커머스 사업에서 최근 부진에서 비롯된 일회성 비용이 발생할 여지 등을 추정치에 감안해 4분기 실적을 조정했음을 밝힌다

투자지표

(십억원, IFRS 연결)	2021	2022	2023F	2024F
매출액	1,923.7	2,114.9	2,279.7	2,503.5
영업이익	97.9	39.1	76.2	90.2
EBITDA	171.2	117.9	166.7	199.2
세전이익	150.9	1.5	71.9	89.7
순이익	129.7	-31.8	47.0	60.5
지배주주지분순이익	116.9	-32.1	46.4	47.4
EPS(원)	3,115	-869	1,329	1,358
증감률(% YoY)	444.9	적전	흑전	2.2
PER(배)	14.4	-28.7	17.6	16.9
PBR(배)	0.92	0.53	0.48	0.47
EV/EBITDA(배)	2.0	4.5	3.0	2.8
영업이익률(%)	5.1	1.8	3.3	3.6
ROE(%)	6.8	-1.8	2.7	2.8
순차입금비율(%)	-38.1	-33.4	-31.3	-28.0



디케이티

하반기 북미 OLED 태블릿 납품 개시

[\[출처\] NH투자증권 이규 애널리스트](#)

북미 OLED 태블릿 납품 확정

동사는 FPCB 기판에 칩을 실장하는 업체로 기존 매출 대부분은 국내 고객사 스마트폰에서 발생. 하지만 최근 북미 고객사 OLED 태블릿에 납품이 확정되었고 전장, 전기차 충전 등으로 전방산업 및 고객사 다변화 기대. 실적 성장성과 낮은 밸류에이션 고려 시 주가 업사이드 크다고 판단

그동안 동사의 가장 아쉬운 부분은 국내 스마트폰 고객사 비중이 높아 실적 성장성이 제한적이었던 점. 하지만 최근 북미업체의 태블릿 납품이 확정되어 중장기 성장성 확보. 2024년에는 디스플레이 고객사 물량의 약 10~15% 담당하고 2025년에는 메인 벤더 가능성 높은 상황

해당 매출은 2025년 약 500억원, 2026년 1,000억원, 2027년 1,500억원 수준을 기록하며 전체 실적 성장을 견인할 것. 이외에도 무선충전 등 전장사업부 매출 확대와 전기차 충전 모듈 등 신규 사업도 가세해 동사 실적은 중장기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북미 IT OLED 등 신사업 확대로 실적 증가세 이어질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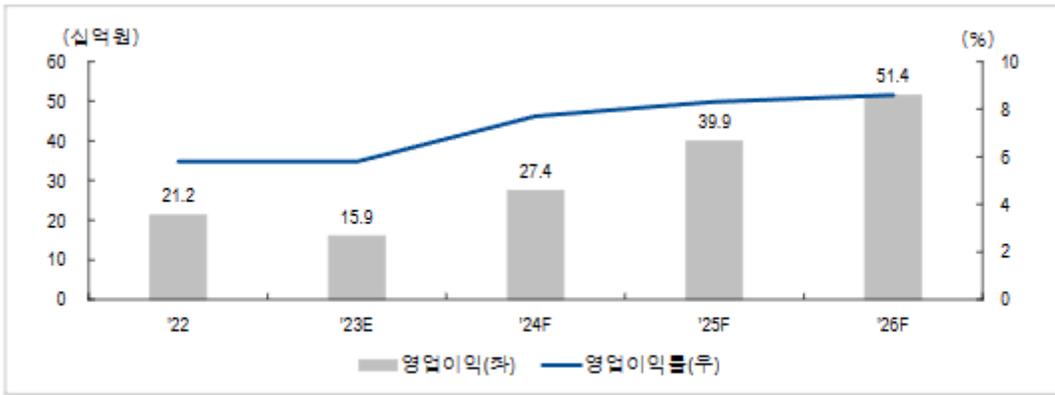
동사 2024년 영업이익은 274억원(+72% y-y)수준을 기록하며 성장세 가파를 것으로 기대. 2025년에도 OLED 태블릿, 전장, 전기차 충전소 등 신사업 확대에 힘입어 영업이익 399억원(+45.4% y-y)으로 크게 증가 전망

북미 IT OLED, 전장, 전기차 충전소 등으로 전방산업이 다변화되어 중장기 실적 성장세가 클 것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2024년 주당순이익 기준 PER 7.2배의 현재 주가는 과도한 저평가 구간이라고 판단

	2022	2023E	2024F	2025F
매출액	363.5	276.3	356.1	480.8
증감률	15.3	-24.0	28.9	35.0
영업이익	21.2	15.9	27.4	39.9
증감률	16.8	-24.7	72.0	45.4
영업이익률	5.8	5.8	7.7	8.3
(지배지분)순이익	19.6	14.1	23.7	33.8
EPS	1,193	799	1,269	1,812
증감률	124.6	-33.0	58.9	42.7
PER	6.7	10.6	7.2	5.0
PBR	1.3	1.4	1.2	1.0
EV/EBITDA	4.1	4.0	2.7	1.7
ROE	21.9	13.1	18.7	21.8
부채비율	98.5	102.4	88.5	77.2
순차입금	-16.1	-56.7	-66.0	-81.5

단위: 십억원, %, 원, 배

디케이티 영업이익 및 영업이익률 전망



자료: 디케이티,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전망



9,330 ▲ 160 +1.74% 150,697 50.04% 0.81% 1,391백만 호가 9,330 9,320 시 9,180 고 9,390 저 9,080 매수 매도 평

